

성공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어드바이저

CHANNEL

2023 SEPTEMBER
Vol.248

성큼 다가온 가을
넉넉하고 풍성하게!

삼성 KPMG



Goodbye Summer,

Hello Autumn!

유난히 더웠던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선선한 바람과 청명한 하늘, 곳곳에 물든 나뭇잎들이
가을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가을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고 이루지 못한 게
무엇이며 그리고 내년에는 무엇이 하고 싶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할 완벽한 시간이다.(작가 미상)”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계절 가을을 만끽하며,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목표를 다시금 다짐해 봅니다.

건강한 성장

04 Emerging Trends

충전 인프라 산업의 부상,
시장 선점을 위한 3가지 질문

06 Market Reader

CFO, 기업 비즈니스의 전략적
리더로서 역할과 핵심 역량은?

08 Team Story

위기를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상장유지자문센터

10 Client+

유해화학물질 누출 감지 센서 전문 제조 기업,
지아이에프코리아(GIF KOREA)

12 Expert's Advice

EU 네트워크 & 정보 보안 지침 (EU NIS2)
도입 대응 방안은?

14 알쓸사전

알아두면 쓸데있는
시사·경제 용어사전

행복한 일터

16 인재양성소

People First!
인재 성장 지원

20 Trusted Advisor

1년 차 컨설턴트가 말하는
삼성KPMG 컨설팅은요?

22 삼성동호회자랑

근손실방지 삼성인을 위한 피트니스 동호회!
KPMG Power Muscle Group

24 Talk+Play+Love

시원하게! 짜릿하게!
뜨거운 무더위를 날린 삼성인

26 삼삼오오

Eat, Play, Talk!
동료들과 먹고, 즐기며, 소통하며!

28 이동규의 두줄칼럼

최고의 장군(將軍)

30 心 Care

사라져 버린 열정의 회복을 위해서

32 Samjong News

'제9회 청소년 경영·경제 교육' 개최,
50여 명 중고등학생 참가해 외



QR코드를 통해 삼성KPMG의
생생한 정보를 만나보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삼성KPMG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발행처 삼성KPMG

기획·편집 홍보팀(02-2112-7567)

디자인 네오메디아(02-512-1666)

인쇄 드림인쇄(02-464-6161)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 (우편번호)06236

홈페이지 home.kpmg.kr/ko/home.html

충전 인프라 산업의 부상, 시장 선점을 위한 3가지 질문

전기차는 전 세계적으로 2022년 800만 대 가까이 판매되며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약 10%를 차지했다. 프랑스 발명가 구스타프 트루베가 전기 동력 기반의 삼륜 자동차를 최초로 운행한 지 140여 년만의 일이다. 이러한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는 충전 인프라 시장의 본격적인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성장이 본격화된 충전 인프라 시장을 살펴보고,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기업이 고민해야 할 3가지 핵심 질문에 대해 알아본다.



서막이 열린 충전 인프라 시장

시장조사기관 스탯이스타(Statista)에 따르면, 전 세계 충전 인프라 시장 규모는 2021년 144억 9,500만 달러에서 연평균 27% 성장해 2030년에 약 1,281억 3,500만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마켓앤마켓(MarketsandMarkets)은 전 세계 충전 인프라 시장이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45% 성장해 2027년에는 약 769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마다 절대적인 시장 규모와 성장률에는 차이가 있으나, 이제 충전 인프라 시장의 성장세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된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이용자...

충전소 부족, 기기 고장 등 불편 토로

충전 인프라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시장의 미래가 모두 장밋빛인 것은 아니다. 서울시의회와 전기차 충전

정보 앱인 'EV Infra'의 조사에 따르면, 전기차 운전자들은 충전소 부족, 충전소 관련 데이터 불충분, 대기 시간 발생, 충전기 고장, 잦은 결제 오류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불편한 점들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종 소비자의 다양한 고민은 충전 인프라 밸류체인 단계별로 구분된다. 충전 인프라 밸류체인 중 충전소 구축 단계와 연관된 불편 사항(Pain Point)은 적재적소에 충전소가 충분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충전소 운영 단계에서 소비자의 불편 사항은 충전소에 방문했을 때 예상치 못한 대기 시간이 발생하거나, 충전기가 고장나 충전하지 못할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이다. 충전 관련 서비스 제공 단계에서는 충전소 관련 데이터가 불충분하거나 정확하지 않다는 점, 잦은 결제 오류 등으로 인해 충전 프로세스가 복잡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충전 인프라 시장 선점 위한 3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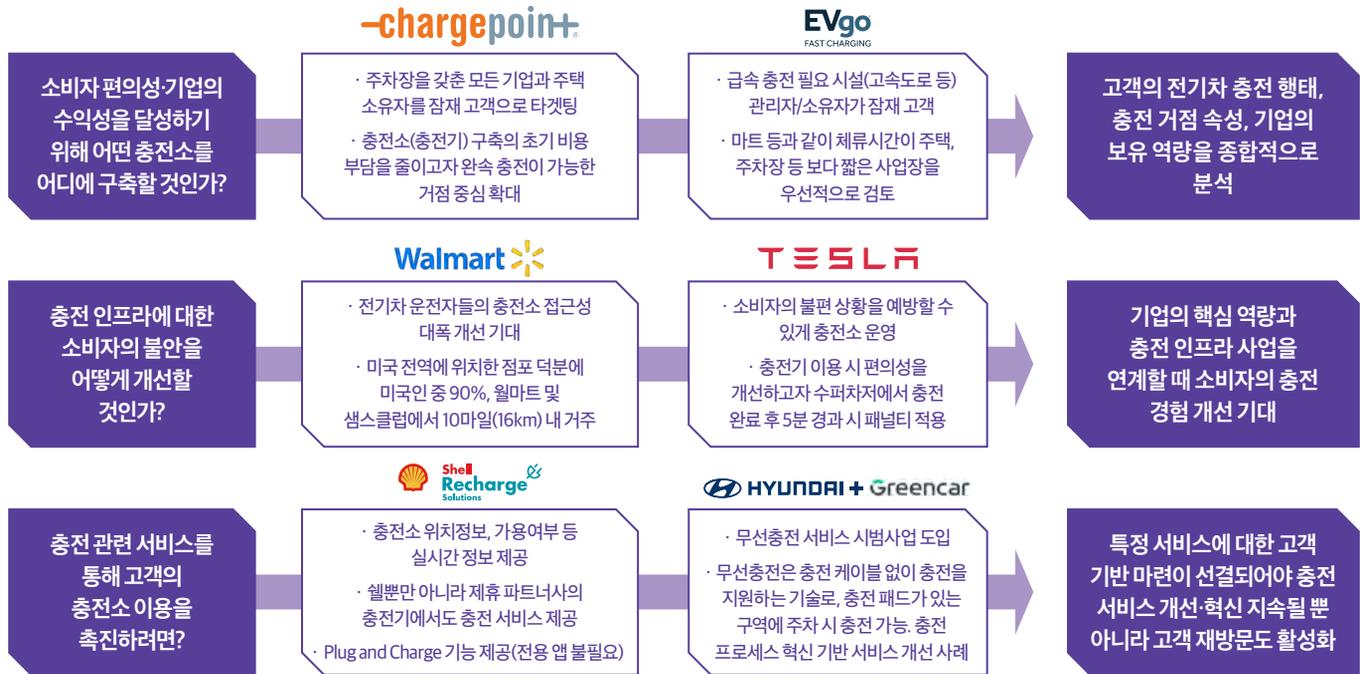
기업은 충전소 구축, 충전소 운영, 충전 관련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소비자의 불편 사항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각 기업은 답을 얻기 위해 3가지 질문을 해야 한다.

첫 번째 질문은 '소비자의 편의성과 기업의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어떤 충전소를 어디에 구축할 것인가?'다. 이를 위해 충전소 운영사(CPO, Charge Point Operator)는 잠재 고객의 충전 행태, 충전 거점 속성, 기업 보유 역량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전 세계 완속 충전기 시장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유한 미국의 차지포인트(ChargePoint)는 자사 잠재 고객을 '주차장을 갖춘 모든 기업과 주택 소유자'로 정했는데, 이는 완속 충전기 사용자들의 충전 행태를 고려했을 때

핵심 질문

충전 인프라 기업의 대응 동향

전략 도출 시 고려사항



Source :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장시간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회사 또는 집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질문은 '충전 인프라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다. 전기차 운전자는 자신이 원할 때 충전 인프라를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불안하게 느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업은 충전소 접근성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신뢰도를 회복시킴과 동시에 충전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테슬라는 자사 충전 네트워크인 슈퍼차저(Super Charger)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충전 시 맞닥뜨리는 불편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슈퍼차저 또는 데스티네이션차저(Destination Charger)를 확충했을 뿐만 아니라 충전이 완료된 차량이 방치되어 다른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패널티 요금 정책을 수립, 모든 사용자가 자신이 원할 때 충전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안을 해소하고 있다.

세 번째 질문은 '충전 관련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충전소 이용을 촉진하려면?'이다. 충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충전소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하고 충전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여 고객의 수고를 덜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은 일정 수준 이상의 고객 기반을 마련하고 이들의 충성도를 강화함으로써 고객이 다시 찾는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 쉘 리차지(Shell Recharge)는 고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쉘뿐만 아니라 제휴사를 확보해 쉘 고객이 타사 충전기에서도 충전할 수 있는 로밍 플랫폼을 확대함으로써 자사 고객의 충전 경험을 긍정적으로 개선, 고객의 충성도를 강화하고 있다.

국내 충전 인프라 시장에 대기업의 참여

가 활발해지면서 다각적인 방향에서 충전 인프라 산업이 변모하고 있다. 국내 기업이 전기차 운전자의 불편 사항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충전 인프라 시장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기 기대한다.



*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본 칼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고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NTACT US



IM2 본부
황재남 부대표
Tel. 02-2112-7609
E-mail. jaenamhwang@kr.kpmg.com

경제연구원 김나래 수석연구원
Tel. 02-2112-7095
E-mail. nkim15@kr.kpmg.com

CFO, 기업 비즈니스의 전략적 리더로서 역할과 핵심 역량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기업들은 과거와는 다른 방식의 혁신과 운영 방식을 모색 중이다. 이 과정에서 CFO(Chief Financial Officer, 최고재무책임자) 역시 회계와 재무 관리 영역을 넘어 기업의 전사적 리더로서 역할하기 위해 새로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KPMG Global이 글로벌 선도기업의 C-Level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CFO의 혁신과 변화를 위한 방향성을 조망해 본다.



CFO, 숫자를 넘어 다양한 역량을 가진 전략가로 변모 중

과거 CFO와 재무팀은 기업의 각종 거래 처리, 회계 장부 작성과 보고, 재고자산이나 토지 등 자산관리, 급여관리 등 회계, 자금 및 세무 업무를 담당하며 ‘돈의 흐름’을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기업 규모가 커지고 글로벌화되면서 CFO는 환율이나 국가별 세금에 대한 지식 등을 갖춰야 했다. 최근 들어서는 주주와 투자자와의 소통은 물론 이익 지속성에 근거한 배당정책 등에 CFO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기업가치와 주주이익을 좌우하고 있다. 또한 CFO는 신성장동력으로서 M&A(인수·합병) 등을 검토·추진하는 한편, 여러 시스템에 산재된 기업 내외부의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취합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신속한 의사 결정을 지원하게 되었다. 즉, CFO는 사회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회계·세무·금융·M&A 등 다양한 전문성을 보

유한 멀티플레이어(Multi-Player)이자 전략가로서 비즈니스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대변화의 시대,

CFO가 갖추어야 할 5가지 역량은?

현재 기업들은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과 급격한 금리 인상, 정치적 리스크에 따른 공급망 교란, 채택근무 및 소통형 톨 등을 이용한 업무 방식, 디지털 전환과 산업 간 빅블러(Big Blur) 등 전례 없는 불확실성과 변화에 놓여있다. 이러한 대변화의 시대에서 CFO가 갖추어야 할 역량은 무엇일까?

KPMG Global이 글로벌 선도기업의 C-Level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래 CFO는 ①기업 전략 및 혁신 ②디지털 가속화 ③데이터 인텔리전스 ④인재 전략 ⑤다이내믹 리스크 관리 등 5가지 어젠다에 대한 인사이트를

통해 재무 혁신을 이루고 기업가치를 강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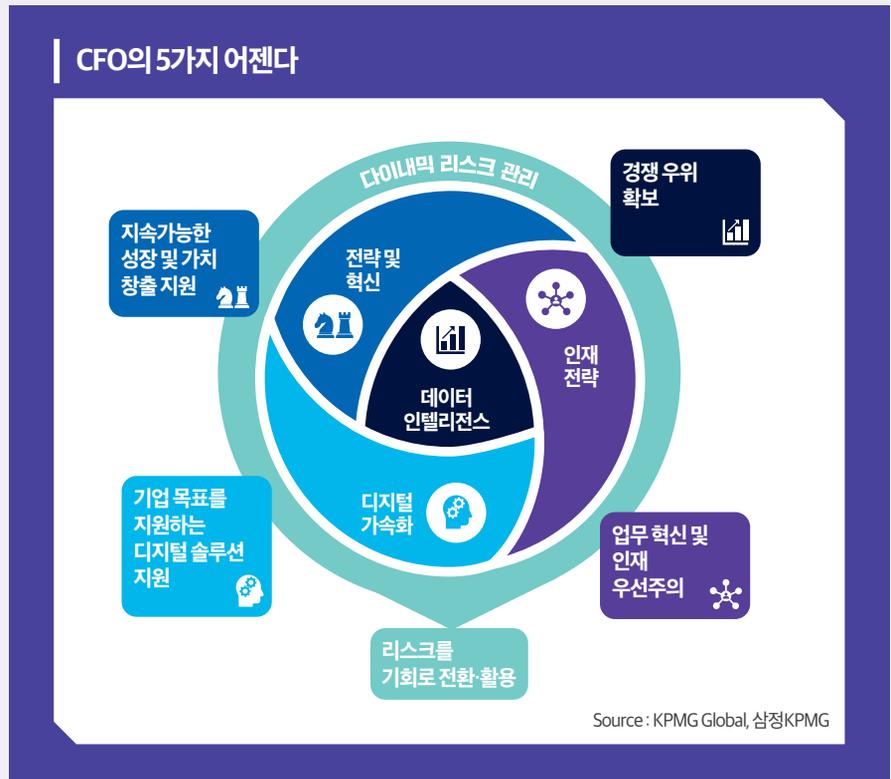
첫째, 재무팀 등에 기업 내외의 각종 재무 데이터와 운영 및 성과지표 관련 데이터 등이 취합되는 만큼, CFO는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전사적 인사이트를 통해 기업 전사 전략을 지원하고 부서 간 이해관계 등을 조정하는 중재자이자 기업의 혁신자로서 역할해야 한다. KPMG Global의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CFO의 68%가 향후 12개월 내 전사적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디지털에 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CFO는 데이터·디지털 이니셔티브 등 기업의 혁신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투자를 추진해야 한다. 조직 문화 측면에서는 효과적인 인재관리 전략 및 경쟁력 있는 보상체계 정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내 각 부서와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CFO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조사 대상 CFO의 70% 이상이 거래 데이터 처리와 보고 업무의 자동화를 추진하는 등 디지털 전환에 적극적이다. CFO는 기업의 디지털 거버넌스 확립과 데이터·디지털 기반 이니셔티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확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유연한 인력 운영 방식 개발 및 효과적 디지털 문화를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CFO는 데이터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인프라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조사 대상 CFO 중 75%는 기업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 시 기업 비즈니스 모델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응답했다. 즉 기업의 효과적 데이터 활용 방안과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이에 CFO는 데이터 품질과 일관성을 높일 수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전자 데이터 수집·관리 방안과 재무 정보 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 데이터의 활용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CFO는 효과적인 인재 관리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글로벌 CFO의 82%는 데이터 역량과 컴퓨터 관련 지식을 지닌 인재 채용에 적극적이며, 50%는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마련 중이다. 국내 CFO 역시 재무팀을 포함해 기업 전체적으로 디지털 인재 채용과 임직원의 역량 개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직원 성과 제고와 업무 동기 개선을 위한 근무 형태 및 업무 공간 조정, 그리고 적절한 인센티브 구조 설계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CFO의 5가지 어젠다



다섯째, CFO는 다이나믹 리스크 관리자로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지혜도 갖춰야 한다. 높아진 변동성과 위험에 대한 대응이 미비하거나, 개인정보 유출이나 횡령과 같은 내부통제 실패 등은 고객과 시장의 신뢰 훼손은 물론 기업의 존립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CFO는 리스크에 대한 대처 역량을 강화하며 데이터 보호와 활용을 균형적으로 고려한 위험 관리 기능을 설계해야 한다. 아울러 위험 최소화화를 위한 디지털 자동화, 데이터와 기술 기반 예측탐지와 처방적 분석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CFO의 역할 확대의 시작점은?

CFO와 재무팀은 '조직과 인력, 정책과 절차, 시스템'이라는 기업의 핵심 자원과 재무의 밸류체인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기업의 내외부 데이터를 재무의 밸류체인과 연계·분석하고

재무적 영향력을 검토하면서 이를 의사 결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CEO 등 기업 경영진의 참여를 통한 적절한 예산 배분 및 인력 지원을 통해, CFO가 조직과 직원의 혁신과 변화를 돕는 변화 관리 전문가이자 가치 관리자로서 역할하기를 기대한다.



*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본 칼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고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NTACT US



MC4
김성수 전무
Tel. 02-2112-0499
E-mail. skim306@kr.kpmg.com

경제연구원 김규림 이사
Tel. 02-2112-4089
E-mail. gyulimkim@kr.kpmg.com

위기를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상장유지자문센터

최근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엄격해진 규제 및 감독 환경에서 많은 기업들이 상장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삼정KPMG는 상장위기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상장폐지 심사의 모든 단계에 걸친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조직 '상장유지자문센터'를 발족했다.



다양한 상장폐지 사유에 특화된

전문 서비스 제공이 필요

지속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영향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글로벌 경기침체 및 원재료비, 고용 비용 증가 등으로 기업들은 어려운 경영환경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IFRS의 복잡하고 방대한 회계 해석으로 인한 회계오류 및 외부감사인 간 의견 차이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내부감사 및 고발 등 부정 적발에 대한 경영진 및 지배구조에 대한 책임이 강조되고



기업의 상장유지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상장유지자문센터

관련 법령의 적용 역시 강화되는 추세이다.

실제 코로나19가 발생한 2019년 이후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에서 매년 40여 개의 기업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고 있다. 이중 상장폐지로 이어진 기업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외부감사인의 감사 의견 변형, 취약한 재무구조 및 경영실적 약화에 따른 자본잠식, 부도·파산 등 상장유지를 위한 형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혹은 횡령·배임, 회계 위반, 불성실 공시 및 경영권의 잦은 변동 등 실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상장기업들은 여러 상장폐지 사유에 따른 대응 마련이 필요하며, 전문가들과 함께 상황별 맞춤 솔루션을 함께 모색해 가는 것을 추천한다.

고도의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겸비한 상장유지자문 전문가 그룹!

삼정KPMG는 지난 8월에 상장유지자문센터를 발족하여, 상장유지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선제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개선계획 수립부터 개선계획 이행까지 기업의 상장유지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상장유지자문센터는 센터장인 박성배 부대표를 필두로 하여, IFRS 해석 및 외부감사에 관한 산업별 전문가, Forensic(부정 조사) 전담팀, 기업회생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M&A 전문가, 다수의 사업·지배구조 개편 실행 및 사후관리를 경험한 구조조정 전담팀, 과세 위험을 사전적으로 진단하는 세무 전문가 등 3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장유지자문센터는 기업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유별 이슈를 분석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Service Network와 협업해 상장폐지 사유 및 거래 정지에 대한 이의 신청, 그리고 개선계획서 작성 등을 지원한다. 이후 개선계획서에 대한 실질 심사를 통한 개선 기간이 부여되면 상장폐지 사유에 따라 회계기준의 해석을 다루는 회계자문 서비스(Private Accounting Service), 부정 조사와 관련하여 내부감시기구 및 외부감사인 대응을 위한 부정 조사, 계속기업가정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투자유치, 자산매각, 기업회생절차 및 지배구조 개선 등의 사업재편, 과세 이슈에 대한 사전진단 등의 자문을 수행한다.

상장유지자문센터를 소개한다면?



박성배 부대표
(센터장)
sungbaepark
@kr.kpmg.com

상장유지자문센터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각 분야별 최고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장유지 자문을 위해서 협업이 필요한 회계법인, 법무법인 및 감독기관 등에 대해 광범위한 Network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강력한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잠재력 있는 기업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할 것입니다.



고정우 전문
jko1
@kr.kpmg.com

우리 센터는 각 전문가들이 한 데 모여, 기업의 상장유지 활동을 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기업의 상장유지를 지원하는 데 나아가, 투자자 보호에도 힘써 나가고자 합니다.

상장유지자문센터 주요 서비스

상장폐지 단계별 대응 절차

삼정KPMG는 상장폐지 사유별 대응 전략을 포함한 개선계획 수립부터 이행 및 심사 지원까지 상장폐지 심사의 모든 단계를 자문함으로써 기업의 상장유지 활동 지원

상장폐지 사유별 제공 서비스

삼정KPMG는 상장폐지 사유별 이슈와 특성때 따른 상장폐지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효과적인 개선계획을 도출하고 그 실행을 자문함으로써 개선계획의 효과적인 이행 지원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할 것!

삼정KPMG 상장유지자문센터는 실력과 경험은 물론, 열정적으로 상장 위기 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 및 종합적인 상장유지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잠재력 있는 기업의 상장유지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건전한 성장과 자본시장의 신뢰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김성배 전문
sungbaekim
@kr.kpmg.com

업계 최고의 우수한 인력과 강력한 네트워크,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향후에도 고객의 절실함에 부합하는 열정으로 임하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누출 감지 센서 전문 제조 기업, 지아이에프코리아(GIF KOREA)

지아이에프코리아(주)는 유해화학물질 누출 감지 센서 전문 제조 기업이다. 다공성 흡착 구조의 나노 소재를 이용한 고감도 화학센서 원천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할 수 있는 산업안전 제품을 제조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산업현장의 유해화학물질 누출을 막으며 산업안전을 위해 기술을 개발하는 지아이에프코리아를 소개한다.

업계 최초 행정안전부 인증 취득 등 유해화학물질 누출 막는 기술 인정받아

지아이에프코리아는 유해화학물질 누출을 감지하는 센서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으로, 2016년 2월에 안현수 대표가 설립했다.

안 대표는 반도체 업계에서 15년간 기술영업직으로 근무한 전문가로,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업계에 종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안전을 향한 경각심을 갖고 있었다. 특히, 실제 현장에서 센서 오작동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작업자가 대피하려 라인 가동이 중단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되었을 때 누출된 부분을 빠르게 파악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회사의 비용 절감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변색센서를 개발했다.

지아이에프코리아는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에 대한 예방을 위해 오작동 없는 누출 감지 센서 개발을 시작으로 환경안전분야의 첫 솔루션을 제

시했다. 기존의 업체들은 공장 곳곳에 센서를 부착해 내부 유독물질을 감지하는데, 이런 방식은 이미 공장에 유독 물질이 쌓였다는 것이다. 이에 지아이에프코리아는 파이프 이음새처럼 누출이 발생할 수 있는 포인트에 센서를 부착하고 이를 중앙에서 관리,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사고를 조기에 진압한다.

지아이에프코리아의 LPS(LEAK POINT SENSOR) 제품은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산, 염기), 가스, 물 누출을 감지하여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테이프형, 실드형, 스프레이, 스틱, 잉크 등 다양한 제품을 두고 있다. LPS 변색센서는 유해화학물질 검출이 발생하면 색 변화를 통해 정확한 누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테이프 형식이나 스프레이 형식 등 설치가 간편하고 오작동이 없다. 또한, 독성가스(CI2/HF/HCl/NH3 등)의 검출 능력이 우수하고 미량의 누출도

감지할 수 있으며, 가역반응이 없고 비산 방지까지 가능한 제품이다. 이에 동종업계 최초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제품인증을 받았으며, 국방부 우수 제품에 지정되는 등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지아이에프코리아는 누출감응 센서 관련 기술특허 6개 보유는 물론, 다수의 상도 받았다. IoT 기술과 연동 가능한 스마트 무선 유해화학물질 센서 기술을 통해 2017년 11월 KDB 스타트업데이에서 최우수상을, 그 래핀 복합체를 이용한 유해화학물질 모니터링 시스템으로는 2018년 10월 슈퍼맨창조오디션 금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후에도 2021 안전新기술 공모전 은상, 2021년 8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날 국토부 장관상, 2021년 10월 부울경 스타트업 데이 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국내를 넘어 세계로!
초소형 센서시장 진입도 고려

지아이에프코리아의 LPS 변색센서는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정유회사, 케미컬 제조업체, 반도체 장비업체 등 다양한 고객사에 납품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군 비행장에도 납품하면서 유통판로를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대기업 및 연구기관과 협업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을 출시하여 글로벌 안전의 선도기업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현재 중국 및 대만 등 아시아뿐만 아니라 중동지역인 두바이에도 수출을 진행하면서 해외시장의 판로를 개척하고 있다.

아울러 지아이에프코리아는 유해화학물질 누출 시 신호를 보내 모니터링할 수 있는 소재반응식 센서를 개발해 유해화학물질 사고 제료를 목

표로 제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현재 출시 준비 중인 센서는 화학물질 센서 간 소재 팽창 반응을 통해 값을 연산하는 방식으로 외부 환경(폭우, 높은 습도, 겨울철 눈)에 의한 오작동 발생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배터리 적용으로 전원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의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적용이 가능하며 화학물질 이송 수단인 탱크로리나 컨테이너 등에도 설치할 수 있다. 이외에도 초소형 센서시장에 진입해 산업 안전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인공지능 기술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나노 소재 센서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이다.

구성원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 문화

지아이에프코리아는 “나는 지금 성장하고 있나?”, “회사는 지금 성장하고 있나?” 기업 구성원들과 함께 같이 고민하고 공유하여 성장해야 한다는 마인드로 나아가고 있다. 이에 구성원들과의 집단 지성을 통한 진정한 성장을 함께 도모해 가고 있다. 아울러, 내부 인프라를 더욱 체계화하여 인재를 영입해 성장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아이에프코리아는 기부 활동을 통해 나눔에도 앞장서고 있다. 2021년 산업재해 장애인을 위한 기부(한국산재장애인 복지진흥회), 2022년 이태원 참사 피해 이웃을 위한 기부(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2023년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피해 기부(월드비전), 2023년 수해 피해 이웃을 위한 기부(희망 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을 진행해왔다.



1. 새로운 제품 개발을 위해 연구에 매진하는 연구원의 모습
2. 지아이에프코리아는 업계 최초 행정안전부 인증을 취득했다
3. 지아이에프코리아 안현수 대표
4. 유해화학물질 누출감지 변색센서 'LPS', 스프레이와 테이프 등 다양한 제품군으로 개발됐다
5. 지아이에프코리아는 구성원들과 함께 성장을 고민하고, 공유하며 나아가고 있다





EU 네트워크 & 정보 보안 지침 (EU NIS2) 도입 대응 방안은?

유럽연합(EU)의 사이버 보안 지침인 NIS2(Network and Information Systems 2)의 세부 요구사항이 공개되는 2024년 10월까지 관련 기업들의 대응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호에서는 EU의 새로운 사이버 보안 지침인 NIS2에 대해 살펴보고, 기업들의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Q EU NIS2는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유럽연합(EU)은 2017년 국민의 일상적인 생활을 위한 사회기반서비스의 가용성과 안정성을 위해서, 이를 EU 내에서 제공하는 공공 및 민간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사이버 보안 관련 사고대응과 복원력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및 정보시스템지침 (NIS: Network and Information Systems Directive)'를 발표했습니다. EU 내에서 운영되는 전력, 석유화학, 가스, 항공, 철도, 수상, 도로교통, 금융, 보건, 수자원 등의 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 미충족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었으며, 2023년 올해 1월 NIS의 개정된 NIS2를 발효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원국별 NIS2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입법 제정과 세부 내용이 공개되는 2024년 10월까지 관련 기업들의 대응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EU의 새로운 사이버 보안 지침인 NIS2에 대해 살펴보고, 기업들의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 보려 합니다.

Q 새로운 EU의 사이버 보안 지침(NIS2)은 기존과 어떻게 다른가요?

지난해 12월 EU는 개정된 NIS2 지침을 공표했습니다. 초기 NIS 지침은 주목할 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결과로 인한 디지털 혁신의 가속화는 사이버 위협 환경을 높였고, 사고 대응 및 복구가 늦어지는 결과로 이어져 법률적 지침의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새 NIS 규정에는 핵심 산업 인프라 공급망에 필수적인 기업 외에도 새로운 산업군들을 포함하는 등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또한, 기존 NIS 지침은 7개의 핵심 분야를 다룬 반면, 새 지침에서는 안전 및 효율, 사회에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부문까지 관점을 확장해 9개의 부문이 추가됐으며, 이에 해당하는 기업이 중기업인 50인 이상 연간매출 1000만 유로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EU NIS2 지침의 진행 일정

2023. 1.16	EU 집행위원회의 NIS2 발효
2024.10.17	EU 회원국별 이행 입법 제정 완료
2024.10.18	EU 회원국 NIS2 적용, 기존 NIS1와 ECI (유럽핵심시설) 지침 폐지
2025.1.17	EU 회원국별 위반 시 처벌 규칙 발표
2025.4.17	EU 회원국별 NIS2 대상기업 발표 (2년 주기로 수정)



필수조직

- 에너지 (전력 석유 가스 냉난방 수소)
- 교통 (항공, 철도, 수상, 항만, 도로)
- 금융 (금융인프라, 은행업)
- 의료 (의료서비스, 의약품 연구 개발 제조)
- 공공행정, 식수, 폐수
- 디지털인프라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CDN, 전자통신, 네트워크, ICT 서비스)
- 우주 (안테나, 인공위성)
- 기존 NIS의 필수조직 및 EU회원국이 선정하는 필수조직

중요조직

- 우편 물류 배송서비스
- 폐기물관리
- 화학물질 (제조, 생산, 유통)
- 식품 (생산, 가공, 유통)
- 제조 (의료기기, 컴퓨터, 운송장비)
- 디지털서비스 (온라인마켓, 검색엔진, SNS)
- 연구기관
- EU 회원국이 선정하는 중요조직

NIS2는 기존 NIS 지침의 요구사항에 비해 자율적이지 않으며, 주어진 기간 내에 NIS2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조직에 대해 EU는 GDPR 법안과 유사한 재정적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또한 세부 요구사항의 내용들은 비즈니스의 IT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산업 시설이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기술적 내용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NIS2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조직의 C-level 임원에 대한 처벌 가능성도 있으며, 임원진에 포함된 조직의 개인들에게도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NIS2 위반 시	조직 규모
필수조직	벌금 1000만 유로(140억 원) 혹은 전 세계 연간매출의 2% 중 큰 금액	직원 250인 이상 연간매출 4300만 유로 (600억 원)이상
중요조직	벌금 700만 유로 (100억 원) 혹은 전 세계 연간매출의 1.4% 중 큰 금액	직원 50인 이상 연간매출 1000만 유로 (140억 원)이상

Q 기업의 대응 전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응 전략으로 ▲최고경영진의 인식 촉구 ▲표준 및 프레임워크 구현 ▲긴급 개선 (Fix-it) 프로그램 수립과 실행 ▲거버넌스 책임 확대 등 4가지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먼저, NIS2가 발효되기까지 준비 기한이 짧은 만큼 최고경영진의 관심 아래 새로운 사이버 보안 법률 의무를 준비해야 합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C레벨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며, 기업에는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최고경영진은 NIS2가 가져오는 영향에 대해 IT 및 OT(Operational Technology·산업운영 기술) 측면에서 자원과 조직을 갖추고 대응 전략을 고민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NIS2는 사이버 리스크 관리를 의무화해 기업의 회복력과 연속성을 보장하면서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 내 인프라 취약점을 식별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NIS2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아직은 모호하기 때문에 IEC 62443과 같은 OT 산업 보안 관련 국제 표준을 따를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보안 취약점을 파악하는 'Fix-it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개선을 위한 활동인 보안 아키텍처 구현부터 조직개편 등을 지원해 조직에서 파악된 사이버 보안 문제점을 기한 내 즉시 경감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NIS2 새 규정에 따라 사이버 보안이 경영 이사회의 필수 안건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경영진은 사이버 보안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춰야 합니다.

경영진은 NIS2 영향에 대해 교육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정기적으로 사이버 보안 교육을 받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로 사이버 공격이 발생한 경우 이사회는 조직 내 검증된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에, 관련 프로그램 구축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NIS2는 EU 내 기업들에게 다양한 사이버 보안 규정을 요구하고 있어, 관련 기업들은 안전한 디지털 신기술 도입과 디지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융합보안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자산의 수명주기관리와 사고대응 복구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업의 사업전략 방향과 디지털 혁신 속도에 맞춘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Digital 최민화 상무

Tel. 02-2112-7487
E-mail. mchoe@kr.kpmg.com

알아두면 쓸데있는 시사·경제 용어사전

최근 인간의 뇌를 닮은 새로운 반도체가 등장했다. 아울러, ESG 경영 시대에 발맞춰 기업의 탄소 배출량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인증하는 기구도 눈길을 끈다. 이번 호에서는 이를 의미하는 두 가지 용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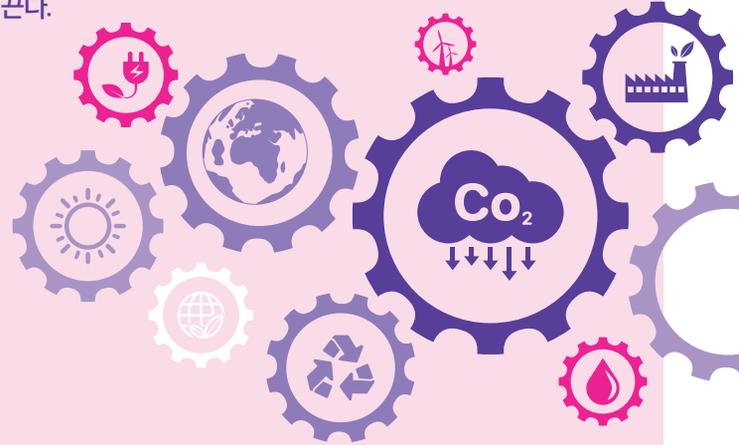
인간의 뇌를 닮은 새로운 반도체

뉴로모픽 반도체 (Neuromorphic Chip)

인공지능(AI)과 뇌 과학의 원리를 접목한 기술을 구현한 차세대 반도체를 의미해요. 사람의 뇌 신경망과 같이 인자·추론 등 뇌의 고차원 기능까지 재현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해요. 뉴로모픽 반도체는 뉴런 신경 회로망의 작동 원리를 따라 설계되어, 뇌의 학습과 기억 기능처럼 뉴런 간의 연결과 시냅스 강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데요, 동시다발적으로 연산과 정보처리가 가능한 점이 특징이에요. 또한 신경망 밀도가 높고, 전력을 적게 소모한다고 해요. 아직은 연구·개발(R&D) 단계이지만,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데이터양이 팽창하고, 소비 전력이 증가하는 환경 등에 모두 대응할 수 있는 신기술로 주목받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뉴로모픽 반도체가 인간의 뇌 구조를 모방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친숙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기 쉽고, 향후 의료 진단이나 자율주행 자동차 등 여러 응용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한편, 최근 삼성전자와 미국 하버드대 연구진은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인 뉴로모픽 반도체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한 바 있어요. 삼성전자는 기존에 보유한 반도체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뉴로모픽 연구에 지속 집중해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에서 기술 리더십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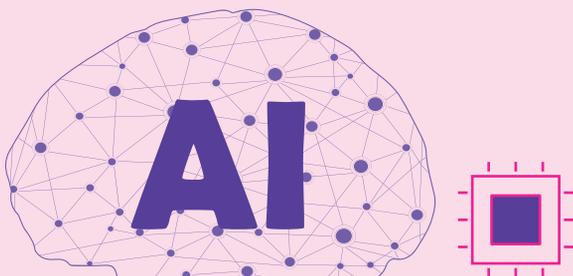
기업의 탄소 배출량을 과학적으로 측정, 인증하는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

(SBTi·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SBTi는 온실가스 배출로 발생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 UN글로벌컴팩트(UNG), 세계자원연구소(WRI), 세계자연기금(WWF) 등이 공동 설립한 글로벌 연합기구인데요, 온실가스 배출 삭감을 목표로 만들어졌어요. 특히 주요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이니셔티브 중 가장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니셔티브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가입 후 24개월 이내에 SBTi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 및 제출해야 하며, 해당 목표가 승인돼야 최종 가입이 완료돼요. 또한, SBTi는 가입 기업의 탄소중립 실적을 매년 공개할 뿐 아니라, 5년 주기로 목표도 재검토해 공개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4천 개 이상의 기업이 SBTi를 통해 기후과학에 기반한 배출 감소 목표를 설정해 탄소중립 경제 전환을 주도하고 있어요. LG전자, 신한은행, 롯데쇼핑, SK케미칼, 한국타이어 등 우리나라 기업들 역시 참여 중인데요, 최근 한국타이어는 국내 업계 최초로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SBTi)로부터 2030 단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승인받았다고 해요.



Happy workplace



원격화 시대

인재양성소

People First!
인재 성장 지원

16

Trusted Advisor

1년 차 컨설턴트가 말하는
삼정KPMG 컨설팅은요?

20

삼정동호회자랑

근손실방지 삼정인을 위한
피트니스 동호회!
KPMG Power Muscle Group

22

Talk+Play+Love

시원하게! 짜릿하게!
뜨거운 무더위를 날린 삼정인

24

삼삼오오

Eat, Play, Talk!
동료들과 먹고, 즐기며, 소통하며!

26

이동규의 두줄칼럼

최고의 장군
(將軍)

28

心 Care

사라져 버린 열정의 회복을 위해서

30

Samjong News

'제9회 청소년 경영·경제 교육' 개최,
50여 명 중·고등학생 참가해 외

32

People First! 인재 성장 지원

Global Elite Program(GEP) 14기

우수자 시상식 개최

People First 문화를 추구하는 삼정KPMG는 인재들을 격려하며,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법인의 주니어 집중 프로그램인 Global Elite Program(GEP)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삼정인을 위한 시상식을 개최하고, 해외 연수의 기회를 제공 중이다. 아울러, 매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종합평가시험 성적우수자를 위한 시상식을 열어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8월에 개최된 시상식 현장 소식과 함께 우수자들의 미니 인터뷰를 담아봤다.



GEP 14기 우수자들의 단체 사진

우수자 41명 선정...내년에 영국으로 연수 떠나

삼정KPMG는 주니어 집중 육성 프로그램 'Global Elite Program(GEP)'을 시행하며, 1~3년 차 주니어들이 직무역량, 글로벌 마인드, 전문가 정신을 함양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3년간의 교육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우수자들에게는 법인에서 주관하는 우수자 시상식 및 해외 연수의 기회를 제공받는다.

이번 GEP 14기는 2020년에 입사한 공인 회계사 및 컨설턴트로서, 공인 회계사의 경우에는 한공회 연수, 직무교육 결과 및 업무성과를, 컨설턴트인 경우 업무성과를 종합 평가하여 최종 41명을 GEP 우수자로 선발했다. 지난 8월 29일, 삼정KPMG 본사에서 'GEP 14기 우수자 시상식'이 개최돼, 우수자들은 김교태 회장의 시상으로 표창을 수여받았다. 한편, GEP 14기로 선정된 41명 전원은 2024년 5월에 영국으로 2주간 해외 연수를 떠날 예정이다.

"GEP 14기 우수자 축하드립니다!"

[GEP 14기 우수자 명단]

오승원(B&F1), 박찬웅(B&F2), 윤재승(B&F2), 문희상(B&F3), 황지상(B&F3), 강원재(CM1), 이병웅(CM2), 이재근(CM2), 임현상(ICE1), 박준현(ICE2), 이동찬(ICE2), 홍민호(ICE2), 김범수(ICE3), 차순석(IM1), 김경오(IM2), 김윤석(IM2), 양지원(IM4), 장혁준(IM4), 권오규(IGH), 이요한(IGH), 정형석(IGH), 박태우(IT Audit), 김민지(Tax1), 최아정(Tax1), 서재형(Tax3), 조예주(Tax3), 김석현(Tax4), 김도형(Deal Adv1), 김성진(Deal Adv1), 정동하(Deal Adv1), 최종찬(Deal Adv1), 임하운(Deal Adv5), 이나경(Deal Adv7), 진승희(Deal Adv7), 김돌희(Digital), 최승호(Lighthouse Center), 문준철(MC1), 여은총(MC2), 양동권(RC), 임희준(RC), 김종규(SG)

GEP 14기 우수자

"앞으로도 많이 배우고 즐겁게 생활하자! 파이팅!"



오승원 Senior (B&F1)

GEP 14기 우수자로 선정되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3년간 책임감을 가지고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온 결실을 맺은 것 같습니다. 함께 일하고 있는 본부 구성원들이 축하해 주셔서 더욱 의미 있고 따뜻한 경험인 것 같아요. 사실, 입사 당시 홈페이지에 기재된 선배님들의 GEP 여행 소감문을 보고 막연하게 부러워했던 기억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 제가 우수자로 선정되니 의미가 있고, 그만큼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이 놀랍기도 하네요. 이번에 GEP 우수자로 선정이 된 만큼 동료와 후배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법인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체 불가능한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서 한 층 더 성장한 전문가로 거듭나자!"



서재형 Senior (Tax3)

처음 입사할 때부터 GEP 우수자에 선정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GEP 우수자에 선정되었다는 메일을 확인하고 그 목표가 이뤄졌다는 사실에 정말 많이 놀랐고 기뻐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많이 부족하지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Tax3본부의 모든 분들 덕분에 것 같아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제가 GEP 우수자로 선정될 수 있었던 데에는 우리 본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앞으로 법인과 본부 내에서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선배 회계사로 성장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타성에 젖어 관성적으로 회사 생활하지 말자! 직급과 연차 구애받지 않고 선배님들의 훌륭한 점을 배우고, 성장하자!"



김성진 S.Analyst (Deal Advisory1)

GEP 우수자 선정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에 큰 서프라이즈로 다가왔습니다.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GEP 해외 연수를 다녀오신 손 세화 차장님께서 "내년 5월까지 은근 시간이 금방 가고, 기다리는 재미도 있고, 날씨가 좋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설레며 기대하는 마음도 갖게 되었네요.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도 생겼습니다. 회사 혹은 팀에서 저에게 기대하는 부분과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 부분들이 더욱 커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조율해 가며 좋은 Senior로 성장해 가나고자 합니다. 끝으로 여러모로 배려하고 축하해주신 하병제 부대표님, 실사팀 김진원 부대표님, 김형천, 이기영, 정재훈 상무님을 비롯한 팀원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처럼 재미있고, 즐거운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자.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새로운 도전을 받기며 최선을 다하자!"



양동권 S.Consultant (RC)

선배님에게 GEP 선정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마치 삼성KPMG 입사 소식을 들었을 때처럼 기분이 얼얼하며 좋았습니다. 축하 연락을 받으며 GEP 대상자임을 실감하게 되었고, 해외 연수 기회까지 전해 듣고는 정말 많이 기뻐했습니다. 새로운 기회로 성장하게 도와주시는 본부장님, 전무님, 상무님께 감사드리고 항상 즐거운 분위기로 재밌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선후배, 동료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요새 "좋은 사람과~ 좋은 자리에서~ 좋은 시간을 보냅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함께함으로써 그 자리와 시간이 좋아지게 만드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긍정적인 영향력을 통해 함께 일하면 좋은 동료, 같이 일하고 싶은 동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 한공회 종합평가시험 성적우수자 시상식 열어



2023 한공회 종합평가시험 성적우수자 단체 사진

한공회 종합평가시험 성적우수자 47명 배출

삼정KPMG가 '2023 한국공인회계사회 수습 1년 차 기본실무 및 수습 2년 차 외부감사실무 종합평가시험'에서 5% 이내 성적을 거둔 47명의 회계사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1년 차 기본실무연수 종합평가시험에는 법인 대상자 358명이 응시하여, 23명(6.4%)이 상위 5% 이내의 성적 우수자로 선정됐다. 아울러 올해 1년 차 기본실무 전체 10등 이내의 최상위 성적우수자로 삼정인 3명을 배출했다.

2년 차 외감실무연수 종합평가시험에는 법인 대상자 333명이 응시하여, 24명(7.2%)이 상위 5% 이내의 성적우수자로 선정됐다. 올해 2년 차 외감실무 전체 10등 이내에 최상위 성적우수자는 삼정인 6명이 차지하며, 법인의 위상을 높였다.

"2023 한공회 종합평가시험 성적우수자"

[1년 차 기본실무]

송호진(ICE1), 손광영(CM2), 최서영(IM4), 권혁준(ICE3), 강민석(CM1), 이하현(B&F1), 윤준석(Deal Adv6), 전해빈(Tax2), 김민규(ICE2), 이우주(IGH), 김정(CM1), 장수혁(Deal Adv1), 김유진(Deal Adv2), 강지윤(B&F3), 노성석(IM4), 정시현(B&F1), 배준형(ICE1), 이현경(B&F1), 김은성(CM1), 정운태(IM3), 도승우(ICE2), 신우홍(ICE3), 김인환(Deal Adv6)

[2년 차 외감실무] *2년 연속 성적우수자

이석현*(ICE3), 송채림*(Deal Adv2), 최범열*(B&F2), 이지수*(IT Audit), 정희진*(Deal Adv4), 신윤수*(B&F3), 서광림 (IT Audit), 양정민(Deal Adv6), 최예슬*(Tax3), 정다운*(Deal Adv2), 여다은*(ICE3), 이정우*(CM1), 민경우(CM1), 박수현(B&F3), 이수연(B&F1), 최정호*(IGH), 정철우(ICE2), 강다경(Deal Adv4), 박정원*(Deal Adv1), 황일환(CM2), 노현무(IM2), 임유리(Deal Adv3), 백승미*(ICE3), 김현진(Deal Adv3)

한공회 종합평가시험 성적우수자

"시험 성적에 자만하지 않고 더욱 노력하는 삼정인이 될게요!"



송호진 Associate (ICE1)



법인에 한공회 성적우수자 시상식이 있다는 것이 시험공부에 큰 동기부여가 되었는데,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울러 이번 시험을 준비하면서 주변에서 커피 쿠폰도 보내주시고, 시험 잘 보라고 응원도 많이 해주셨는데, 응원과 기대에 좋은 결과로 보답하게 되어 정말 기쁘네요. 하하. 축하해주신 많은 분들은 물론, 시험 준비에만 집중하도록 배려해 주신 박성배 부대표님, 민성진 전무님, 이한수 이사님, 김현준 매니저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 1년 차 기본 실무에서 좋은 성적 거둔 만큼 2년 차 외감 실무 시험도 좋은 결과를 받아 향후 GEP 우수자로 선정되고 싶어요! 물론 시험 성적에 자만하지 않고 더욱 노력하는 삼정인이 될 거예요.

"도전은 기회가 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회계사 되겠습니다!"



손광영 Associate (CM2)



노력한 일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언제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번 기회로 짧지만 그동안 실무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갈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수상 소식을 듣고 내 일처럼 기뻐해 주신 본부장님과 전무님, 상무님, 매니저님, 그리고 동료 회계사님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년 좋은 자리를 마련하여 직접 축하해 주시는 회장님께서도 감사드립니다.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받아들여, 겸손하게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는 회계사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신 "도전은 곧 기회가 된다"라는 마음으로, 법인에서 마주치는 많은 도전적인 상황을 기회로 바꾸는 회계사가 되고 싶습니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직한 회계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석현 Associate (ICE3)



과분한 포상을 받게 되어 기쁩니다. 시상식의 추억이 앞으로의 회사 생활에 좋은 영양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결과는 시험을 잘 준비하도록 배려해 주신 전철희 부대표님, 최이현 전무님, 김영선 이사님, 김대진 매니저님, 이송 회계사님, 전재현 회계사님 및 다른 팀원들 덕분입니다.

이번 시험을 준비하면서 방대한 범위 중 하나인 윤리 과목의 경우 전체 범위를 살펴보는 대신 한공회 강의에서 다룬 내용 위주로 공부했어요. 한공회 강의는 재수강 시 배속이 가능하기에 배속 기능을 활용해 전 범위를 빠르게 살펴봤어요. 실무 역량의 경우에도 직전 연도 기출을 살펴봄에 기출 문제와 관련된 부분을 역으로 찾아 학습했습니다. 덕분에 시간도 절약하며 효율적으로 학습했던 것 같아요. 모쪼록 이번 수상을 계기로 주변 선후배가 믿고 의지하는 믿음직한 회계사가 되겠습니다!

"삼정KPMG에 꼭 필요한 핵심 인력이 되겠습니다!"



송채림 Associate (Deal Advisory2)



먼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상식에 참여하고, 표창을 수여받을 수 있어 기쁩니다. 앞으로 2년 연속 성적우수자로 저를 소개할 수 있다는 점도 매우 뿌듯하네요. 특히 법인 차원에서 공부하고 노력했던 부분에 대해 알아주는 것 같아서 시상식 참여 후 기분이 매우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시험을 위해 틈나는 시간마다 한공회 강의를 미리 들으면서 필기했고, 시험 직전에는 필기한 부분만 계속 외웠어요. 그리고 올해도 상위 5% 안에 들고 싶어서 세부적인 내용까지 공부했더니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2년 연속 성적우수자로 선정된 만큼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서, 회계사로서 전문성을 키워 유능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삼정KPMG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력이 되겠습니다! 파이팅!

1년 차 컨설턴트가 말하는 삼정KPMG 컨설팅은요?

컨설턴트 공채 시즌을 맞이하여, 1년 차에 접어든 컨설턴트를 만나 삼정KPMG 컨설팅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1년 차 컨설턴트에게 삼정KPMG에서의 생활과 앞으로의 포부, 또한 삼정인이 되기 위한 본인만의 꿀 팁 등에 대해 들어본다.

선두를 달리는 삼정KPMG 컨설팅, 함께 성장 이루기 위해서 삼정인으로!

허지옥: 대학 시절, 다양한 분야에서의 뛰어난 성과로 인한 삼정 KPMG의 명성은 익히 잘 알고 있었고, 관심이 지대했습니다. 그러다 졸업할 때쯤 금융산업의 혁신과 안정화에 기여하고 싶어서 **MC1본부 입사를 희망**하게 됐어요. 신뢰를 중시하는 제 가치관이 삼정KPMG, 그리고 금융 분야와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러한 **제 진심과 열정을 다해 삼정인이 될 수 있었어요.**



신효업: 저는 금융 관련 학회 활동과 인턴을 경험하면서 컨설팅 업무에 대해 깊이 알게 됐어요. 특히,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고객사가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하며 낮은 연차부터 많은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었어요. 그리고 업계 선두를 달리는 **삼정KPMG의 우수 인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어서 입사**하게 됐어요.

이남경: 삼정KPMG는 성장할 수 있는 곳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국내 회계법인 중 최초로 ESG 전담팀을 만든 곳이고 이를 통해 쌓아온 고객의 신뢰와 내부의 인사이트가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ESG 컨설팅은 삼정KPMG가 최고**라는 말을 자주 들어왔어요. 이곳에서 열심히 성장한다면 저 역시도 ESG 전문가가 될 수 있겠다는 믿음이 있어 삼정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수나: 저는 터치폰과 스마트폰, 태블릿 등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이에 따른 사회와 산업구조 변화를 직접 경험한 세대인데요, 학부 전공에서도 **기술과 비즈니스를 공부하면서 디지털 시장에 기여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디지털 컨설팅이라면 앞으로의 산업 내 기술 트렌드를 선도하면서도, 독립적인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으니 **업계 최고인 삼정KPMG 디지털본부에서 전문성을 키워가고 싶다고 생각**했죠.

People First! 훌륭한 인재들과 교류하고 배우며

신효업: 1년간 삼정인으로 지내오면서, 삼정KPMG는 그 어느 회사보다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크게 느껴온 것 같아요. **우수한 인재들과 근무하며 가치 있는 경험을 쌓으며 빠르게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 근무 기간 대비 정말 많은 지식을 갖추게 된 것** 같아요. 특히,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쉽게 얻을 수 있어요.

허지옥: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삼정KPMG에서 생활하며 느끼는 점은 인재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컨설팅 분야

는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이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본부는 실력 있는 분들이 많아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주니어로서 직무를 배울 기회는 넘쳐흐르는 것 같아요! 저도 회사 내부의 훌륭한 전문가들과 도움을 주고받는다라는 사실이 뿌듯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소통과 배려의 문화를 통해 인간적으로 존중받는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이남경: 지난 1년간 일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배웠어요. 우리 본부원분들은 늘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일하시는데요, 이러한 에너지 덕분에 몸이 피곤해도 서로 격려하며 웃을 수 있고, 일이 어려울 때도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며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특히 **직급과 관계없이 적극적이고 수평적으로 소통하며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보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수나: 사실, 저는 제가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함께 일하는 선배님들, 팀원들이 주시는 인사이트 등 배울 수 있는 점을 많이 캐치하고, 제 것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인 내 다양한 교육 과정을 통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심층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To. 미래 후배들에게 “함께 일할 날을 기대합니다!”

이남경: 저는 ESG 컨설턴트가 되고 싶은 마음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기 위해 많이 고민했어요. 이를 면접장에서 차분하고 진지하게 풀어내려고 노력한 게 좋은 결과를 가져왔던 것 같아요! **‘성공은 최종적인 게 아니며, 실패는 치명적인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하고자 하는 용기다.’** 제가 마음이 복잡할 때 위로를 얻었던 말인데요, 입사를 준비하시면서 **불안한 마음보다는 지속하고자 하는 용기를 품으시길 바랄게요! 함께 삼정KPMG에서 동고동락하며 일할 날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신호연: 저는 입사 전에 지원하는 본부의 서비스와 관련 정보를 최대한 많이 습득하려 노력했어요. 모르는 정보가 있다면, 발품을 팔아서 학교 선후배를 통해 관련 업계 종사 중인 지인을 소개받아 정보를 습득했어요. 정보가 있어야, 어떤 경험을 쌓는 게 좋은지 명확히 알 수 있으니까요. 또한, **면접관님들 역시 좋으신 분들이니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자신감 있게 보여주셔서,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이수나 컨설턴트 (Digital)



허지욱 컨설턴트 (MC1)

허지욱: 저 역시도 직무 설명과 삼정KPMG가 나아가는 방향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쏟았어요. 덕분에 삼정KPMG의 핵심 키워드를 통해 진지한 지원자로서 인상을 남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과장된 허위 정보 보다, 제가 입사하고자 하는 실제 의지와 목표를 솔직히 전달해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것 같네요. **미래 후배분들도 진심과 열정을 다해 임해주시면 좋은 결과 얻으실 것으로 생각해요.**

이수나: 저는 컨설팅 관련 인턴 등의 경험이 없었던 지라, 학부 때의 여러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프로젝트를 이끌어 갈 수 있는지 어필하는데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미래 후배님들도 저보다 더 열심히 준비하시고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열심히 하시는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두시면 좋겠어요.** 파이팅!

근손실방지 삼정인을 위한 피트니스 동호회! KPMG Power Muscle Group

지난 2022년 봄에 신설된 핫한 동호회가 있다. 바로 자기 관리의 끝판왕들의 모임인 피트니스 동호회이다. 이번 호에서는 다양한 헬스 기구로 몸도 가꾸고, 마음도 가꾸며 건강한 삶을 이어오고 있는 피트니스 동호회를 만나본다.



지난 7월에 촬영한 바디 프로필 단체 컷, 동호회원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다.

1년 차 신생 동호회, 회원들과 바디 프로필까지 완성!

요즘 MZ세대 사이에서 바디 프로필의 인기가 뜨겁다. 건강과 자기관리를 중요시하며, 건강미를 자랑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바디 프로필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기로 힘입어 삼정KPMG 피트니스 동호회 KPMG Power Muscle Group은 지난 7월 멋지게 바디 프로필 촬영을 마쳤다. KPMG Power Muscle Group이란 이름으로 탄생한 피트니스 동호회는 지난 2022년 5월에 신설되어 활발히 운영 중이다. 이병록 S.Senior(IT Audit)가 회장을 맡아 운영 중이며, 이규원 Analyst(Deal Advisory4), 홍준용 Consultant(RC)가 총무, 김병준 Consultant(SG)가 회계를 맡고 있다.

KPMG Power Muscle Group은 바쁜 일상이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운동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동호회원들과 자율적으로 운동하고 있다. 주 1회 역삼 인근 피트니스 센터에서 웨이트 트레이닝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 이병록 S.Senior는 “목요일 혹은 금요일 중 투표를 통해 모임을 진행 중인데요, 함께 운동 자세도 체크해주고, 운동 방법을 공유하며 다치지 않는 훈련을 지향하고 있어요. 올해 7월에는 회원 4명과 함께 바디 프로필 촬영도 진행했어요. 정말 잊지 못할 배고픔을 느꼈네요. 하하. 하지만 노력한 결과물은 마음에 듭니다”라고 말했다.



김병준
Consultant (SG)의
능률한 뒷모습!



1, 2. 땀 흘리며 운동 중인 피트니스 동호회원의 모습 3. 열심히 운동하고 나서 함께하는 회식

운동 효과 팍팍!

거북목, 라운드 숄더 타파!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해지는 법, 동호회원들은 피트니스 동호회 참여로 건강을 회복했다. 유건백 S.Analyst(Deal Advisory4)는 “온종일 앉아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 이대로 가다 몸이 망가지겠다 싶더라고요. 하하. PT를 받아도 좋지만, 동호회에 가입해서 삼정인들과 친목도 도모하고, 운동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활동하게 됐어요. 현재로서는 대만족입니다”라고 동호회 활동 계기를 전했다.

이규원 Analyst는 “자율적이지만, 1달에 1번은 반드시 나가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어 운동을 주기적으로 하게 돼요”라며, “운동을 하지 않고 지내다 보면 결국, 한 달에 한 번도 땀을 흘리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피트니스 동호회 활동 덕분에 땀도 흘리고 건강해지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이지원 S.Consultant(MC2) 역시 항상 앉아서 일하다 보니 라운드 숄더가 된다며, 운동을 통해 어깨와 등도 짝 찌른 효과를 경험했다고 한다. 무엇보다 같은 운동의 동작도 강도와 횟수에 따라 금방 몸이 달라지는 기분이라며, 생각지 못한 곳에도 근육이 있음을 느낀다고 이현경 Associate(B&F)도 거들었다.

이어 박재현 Manager(CM1)는 운동도 운동이지만, 운동 후에는 간단한 회식도 함께 즐기고 있다며, 운동 후의 갈증을 맥주 한 잔에 함께 털어낼 때 행복하단다. 특히, 자신을 고문하면 할수록 밥이 맛있어지는 마법을 실감한다고 말했다.

웨이트를 넘어 러닝까지!

파워 리프팅 콘텐츠도 고려해

KPMG Power Muscle Group은 이제 막 1년이 지난 신생 동호회지만 활동 계획은 여느 동호회 못지 않다. 이병록 S.Senior는 “현재는 웨이트 위주로 운동을 함께 하고 있지만, 추후에는 러닝 등 건강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어요”라며, “아울러 파워 리프팅 콘텐츠 역시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웨이트 트레이닝은 혼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운동이지만, 함께 어울려 하면 더욱 동기부여가 된다. 운동을 처음 하는 삼정인도 경력자 삼정인들에게 쉽게 운동을 배울 수 있으니, 망설이지 않고 피트니스 동호회에 참여해 보는 건 어떨까? 무엇보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도 함께 가꾸며 다양한 삼정인들과 친목도 도모해 가기를 바라본다. 어쩌면 내년도 바디 프로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피트니스 동호회 문의

이병록 S.Senior (IT Audit)
byeongrokle@kr.kpmg.com

이규원 Analyst (Deal Advisory4)
klee57@kr.kpmg.com

홍준용 Consultant (RC)
joonyonghong@kr.kpmg.com



시원하게! 짜릿하게! 뜨거운 무더위를 날린 삼정인

삼정KPMG는 다양한 본부와 직급의 삼정인이 모여, 이색 취미도 즐기고, 교류할 수 있도록 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Talk+Play+Love'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유난히도 더웠던 여름을 시원하게 날려버린 삼정인들을 만나본다.

우리들이 함께한 여름날의 추억! 서핑으로 파도를 즐겨요

홍상표 Analyst (Deal Advisory)

코로나19가 잦아들고, 일상이 회복되면서 팀원분들과 함께 'Talk+Play+Love'에 참여하게 됐어요. 이번 계기로 업무적인 관계를 넘어 여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하고자 신청했는데, 우리들은 무더운 여름을 이기고자 파도를 즐기는 서핑을 함께 배워 보기로 했어요.

지난 7월의 어느 날, 시흥 웨이브파크에서 서핑 초보 강습을 받았습니다. 물론 안전하게 서핑을 즐기기 위해 사전 교육도 듣고, 준비 운동도 철저히 했어요. 서핑할 때 입을 슈트, 보드, 리쉬 등 기본적인 장비 설

명도 모두 들은 후에, 서핑의 동작인 패들링, 푸쉬, 테이크오프를 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이후 수상에서 강사분이 직접 보드를 밀어주면서 서핑에서 균형을 잡는 것을 체험해 볼 수 있었는데, 처음 서핑을 즐기며 파도를 타는 기분에 놀랐어요. 마치 물과 하나가 된 듯한 특별한 경험도 받았어요. 무엇보다 팀원들이 서로 할 수 있다고 격려하고, 응원하며 서핑을 즐겼던 터라, 더욱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업무 공간을 벗어나, 함께 활동을 하니 그간 서로가 몰랐던 모습을 보게 된 듯해요. 각자의 성향, 관심사 등을 더 이해하는 귀한 시간이었죠.

이번 체험을 함께해준 최종찬 S.Analyst님, 김도영 S.Analyst, 류임현 Analyst님께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번 여름날의 추억을 통해 앞으로 프로젝트 하면서 힘들 때 서로 도와주며 소중한 경험을 만들어 가고 싶어요. 비록 서로 다른 학교와 전공, 지역 출신이지만 함께 화합을 이뤄 아름다운 협업을 이뤄가요~ 파이팅!



SURFING

COME ON!



더위야 가라! 수상레저로 동기들과 찐 우정을 나뉘요

김용한 Associate (ICE2)

재작년에 입사한 후 쉼 없이 달려왔는데, 지난 2년을 돌아보니 동기들과 함께 보낸 시간은 오직 스마트 오피스 혹은 필드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윤재호, 정성현, 백승찬 회계사님과 함께 'Talk+Play+Love'를 통해 뜻깊은 추억도 만들고 서로 간의 단합력, 친밀감을 높이고 싶었어요! 우리들은 이번 기회로 여름의 수상레저를 함께 즐겨 보기로 계획했어요.

이윽고 7월 28일 금요일에 동탄, 상암, 판교 등 각자의 필드에서 업무를 마친 후 수서역에 모여 가평으로 출발했어요. 가는

길에 하남에서 가마솥밥으로 배를 채우고, 숙소에 도착하니 밤 10시였어요. 조금 늦은 시간이었지만, 보드 게임을 즐기며 그간 나누지 못한 대화를 하다 보니 어느덧 새벽이더라고요. 하하. 우리들의 본격적인 Talk+Play+Love 활동은 다음 날 아침 9시부터 시작됐어요. 이른 시간에 가야 기다림 없이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다고 하여 부랴부랴 아침부터 서둘러 나섰죠. 덕분에 우리는 가평에서 제트보트, 바나나보트, 워터슬라이드, 슈퍼맨보트, 디스코보트 등 시원하면서도 재미있는 활동을 즐길 수 있었어요. 그러다 부상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제트보트는 속도가 진짜 빨라서, 원심력으로 이리저리 휩쓸릴 때 동기들과 의기

투합하여 서로 잘 붙잡아줬는데, 그 순간 함께한 성현이 형의 갈비뼈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엄청 아팠을 텐데 우리 동기가 즐겁게 놀 수 있도록 괜찮다는 말만 하시고, 적극적으로 미끄럼틀도 타고, 다른 수상레저도 함께 즐겨주는 모습에 감동했어요. 다행히 활동 후 병원에 가서도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안심했어요.

이번 기회에 수상레저를 처음 즐겼지만, 다시 가보고 싶은 정도로 즐거웠어요. 함께 해준 동기들이 있어서 더욱 즐거웠던 것 같아요. 이제 여가 생활도 잘 즐겼으니, 앞으로 다가올 감사 시즌도 잘 대비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기분들 사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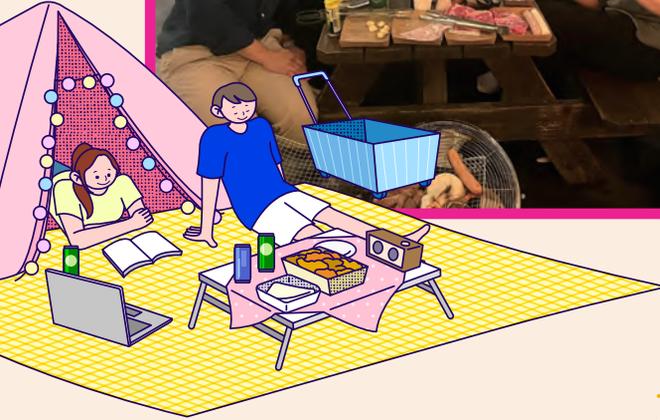


LET'S
GO



Eat, Play, Talk! 동료들과 먹고, 즐기며, 소통하며!

삼정KPMG는 가족 및 동료들과 함께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중 '삼삼오오'는 평소 교류가 어려운 타 본부, 직급의 삼정인들과의 식사 비용을 지원하며, 공감대 형성 및 소통을 권장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호에서는 '삼삼오오'로 먹고, 즐기며, 소통한 이들의 후기를 소개한다.



동기들과 한강에서 저녁 식사를!

송윤휘 Analyst (Deal Advisory7)

'삼삼오오' 덕분에 연수 동기들과 낭만 가득한 한강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호우주의 보가 발효된 날이었지만, 어느 누구도 식당 예약을 취소하지는 않았고 이런 게 청춘이라며 오히려 좋아했던 기억이 나네요. 하하. 시즌이 끝나고 지난 3월에 다같이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뒤 이렇게 함께 모인 건 처음이었어요. 물론 오랜만이지만 어색한 기색 하나 없이 즐거웠던 시간이었어요. 다른 본부로 이뤄진 모임이다 보니 각자 본부의 이야기들을 나누며, 다른 본부의 소식이나 재밌는 얘기들도 알 수 있어요. 또, 바빠서 생일파티를 해주지 못한 4월 이후 생일자들의 늦은 생일파티를 하기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날 저녁에는 어쩌면 매일 보는 본부 동기들보다 더 허물없는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던 것 같습니다. 삼삼오오 같은 좋은 교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삼정에서의 추억이 함께 담겨 된 듯합니다. 그러니 저희는 아마도 해마다 장마 때면 이 여름날 추억의 한 페이지를 다시 넘겨보게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시각을 얻을 수 있던 모임!



예희정 Manager (Deal Advisory6)

'삼삼오오' 프로그램을 통해 출장, 야근 등으로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타 본부 동료들과 만나 맛있는 저녁식사와 함께 각자의 근황 이야기부터 업무 기회까지 공유할 수 있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특히 부동산, 인프라, FDD 등 서로 다른 업무에 대한 내용을 접하게 되어 다양한 시각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좋았습니다.





연수 조 동기들과 오랜만에 친목 도모

허영환 Associate (IGH)

감사 시즌 및 프로젝트로 인해 연수 조 동기들과 못 본 지 오래됐는데, 법인에서 마련해 준 '삼삼오오' 프로그램을 계기로 오랜만에 만나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타 본부 얘기를 접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동기들 만나 얘기를 나누니 타 본부와 법인에 대한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삼삼오오'가 또 하나의 복지라고 느껴졌고, 잘 찾아보면 법인에서 제공해주는 좋은 제도들이 많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제공해 준 삼정KPMG에 감사드립니다.

대학교 동기 삼정인들과 웃음꽃 활짝

배미경 Associate (IM3)

'삼삼오오' 덕분에 졸업하고 나서는 자주 보지 못했던 대학교 동기들과 오순도순 모여 대학교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각자의 본부에서 근무하며 겪은 다양한 업무 경험 및 고충을 공유하는 유익한 만남이었어요. 얼굴을 잊고 살던 동기들을 오랜만에 만나서 쌓인 이야기를 하는데도 정말 재밌었어요. '삼삼오오' 덕분에 바쁜 일상에서 잠깐이나마 웃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법인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도 날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하는 동기들을 보면서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GEP 13기 해외 연수 조원들과 함께

노영주 S.Senior (IT Audit)

GEP 13기 해외 연수 때 같은 조의 조원으로 만나 연수 기간을 보내면서 친해진 동기들과 '삼삼오오' 프로그램을 통해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법인에 입사하고 처음으로 만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가치관이나 관심사가 비슷하고 잘 맞아서 해외 연수 기간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즐겁게 보냈었습니다. 연수에서 돌아오고 나서는 서로 다른 본부이고, 바로 각자의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약속 잡기가 어려워져서 아쉬웠는데, 운 좋게 삼삼오오 프로그램에 선정이 되어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이번 모임에서는 GEP 연수 때 좋았던 점들을 공유하고, 미래 커리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매우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지장보다 덕장이다
덕장보다 현장이다”

최고의 장군 (將軍)

직장 회식 때 건배사로도 많이 쓰이는 사자성어 중에 ‘우문현답’이 있다. 이 말은 “우리의 문제는 현장(現場)에 답이 있다”란 거다. 전문가란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다. 모든 문제는 현장을 모르고서는 풀리지 않는다. 한심한 탁상행정(탁상행정은 현장과의 괴리에서 배양된다.

원래 ‘아는 게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영어 표현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book-smart(책으로 배움)’이고, 다른 하나는 ‘street-smart(세상 경험으로 배움)’이다.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절실한 지식은 바로 현장에서 배운 것들이다. 알고 보면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 ‘안다’의 반대말은 ‘모른다’가 아니라 ‘안다는 착각’이다.

현장의 소리

현장경영의 진수는 있는 그대로의 현장의 살아있는 소리를 듣고 그 즉석에서 해결하는 데 있다. 과거 GE의 타운미팅이 그

전범 사례다. “Walk the Talk”는 이와 관련해서 품질경영(TQM)에서 자주 써온 구다. 있는 그대로 현장을 보라, 살아있는 소리를 들어라, 그리고 보고 듣는 것에 그치지 말고 직접 체험해서 느끼라는 것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뉴욕대 폴 로머(Paul Romer) 교수는 혁신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을 찾기 위해선 현장 지식이 가장 중요하며, ‘직장이 학교(Work is school)’라고 했다. 다만 학교는 돈을 내고 배우는 곳이지만, 직장은 돈을 받고 배우는 고마운 곳을 알아야 한다.

실용 국가 일본은 물건을 만들 때 혼(魂)

을 넣어 최고의 제품을 만든다는 ‘모노쯔꾸리(物作り; ものづくり)’ 전통을 가진 나라다. 과거 일본에서 선풍적 인기를 끈 요리 만화, <쇼타의 초밥>은 대를 이어 가업을 잇는 일본 장인정신의 상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미스터 초밥왕’이라는 이름으로 출간됐다. 스토리는 초밥 요리사의 아들 세키구치 쇼타가 거대 초밥 회사의 황포 아래 가난하게 살다가 도쿄 명품 초밥점에 들어가 최고의 초밥 요리사로 성장한다는 이야기다. 일본에는 100년 이상 역사를 지닌 기업이 3만 8,000여 개, 1000년 이상 된 기업이 무려 7개에 달한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 결과 일본에서는 엔지니어에 대한 사회적 대우가 매우 높다. 이에 반해 우리는 사농공상(士農工商)이라는 한국판 카스트 제도의 유산으로 인해 스스로조차 ‘공돌이’ 운운하며 자신을 비하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알고 보면 ‘공(工)’이란 글자는 하늘과 땅을 연결한다는 굉장한 의미를 가진 글자인데도 말이다. 또한 누가 뭐래도 오늘날 한국을 10대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 낸 1등 공신은 바로 ‘공(工)’과 ‘상(商)’이 아니었던가.

히든 챔피언의 비결

한편 글로벌 강소기업의 나라, 독일의 모든



경쟁력은 현장 마이스터(Meister)의 손끝에서 나온다. 특히 이 나라에선 현장을 모르면 학계에 발을 붙이지 못한다고 한다. 독일 경영학자 헤르만 지몬에 따르면 전세계 2,700여 개 히든 챔피언 중 독일 기업은 1,300여 개로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가전업계의 벤츠인 밀레를 비롯하여 필기구 왕국 파버카스텔, 광학 렌즈의 선도 칼자이스 등 수백 년 역사를 가진 기업들이 즐비하다. 예컨대 세계적인 명품에 쓰이는 단추의 제왕, 프림(Prym)의 설립 연도는 1530년으로 무려 500년에 가까운 기간이다. 모두 제조업 강국 독일이 자랑하는 히든 챔피언이자 ‘미텔슈탄트(Mittelstand·중소기업)’이다.

이들이 오랜 세월 세계를 주름잡는 비결은 무엇일까?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독일인 특유의 근면함,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작업지시서의 이행, 글로벌 전략 등을 꼽는다. 특히 중요한 것이 현장 전문가를 중시하는 문화다. 독일어로 직업인 ‘베르푸(Beruf)’는 영어의 ‘직업(job)’과 ‘소명(calling)’이라는 의미를 함께 갖고 있다. 직업을 단지 돈 버는 수단이라 신으로부터 받은 소명으로 여긴다는 뜻이다.

“More Boots, Less Pants.” 양복을 벗어 던지고 작업화를 신고 현장에 나가라. 최고의 의복은 작업복이고, 최고의 장군은 현장(現場)이다.

▶▶ 저자 소개



이동규 교수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이 교수는 매우 다양한 경력을 거친 국내 정상급 경영평가 전문가이며, 스타 강사로도 유명하다. 또한 베스트셀러, 『생각의 차이가 일류를 만든다』 저자이자 교보 광화문출판 선정(2022년) 작가이다. 현재 조선일보 고정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두줄칼럼」은 삶과 일에 대한 인사이트, 아이디어 및 최신 트렌드 등을 불과 「두줄로 풀어낸 국내 최초의 독창적인 초미니 칼럼 (부제: Think Audition)」이다. 내용은 주로 인문과 경영의 융복합 구성이며, 생각 근육을 키우고 마음의 울림을 느끼게 하는 지식과 사색의 아포리즘 결정체다.



번아웃과 그 외 업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사라져 버린 열정의 회복을 위해서

번아웃 증후군(Burnout Syndrome), 현대 직장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심리 용어이다. 태워 없어지다, 소진되다라는 뜻의 번아웃(Burnout)에서 생긴 말로, 어떤 일에 몰두하고 있던 사람이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느끼고 갑자기 의욕을 상실해 버리거나 열정과 성취감을 잃고 무기력해지는 증상이다. 이번 호에서는 번아웃 증후군에 대해 살펴보고, 그 솔루션을 살펴본다.

글. 최은영 임상심리전문가



번아웃

만성적으로 과도한 업무에서 비롯된 탈진 상태

- 정서적 소진
- 업무에 대한 냉소적 태도
- 업무 효율감 저하



보어아웃

업무에 지루함을 느끼면서 흥미 없고 만족감이 낮은 상태



브라운아웃

일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열정과 의욕이 극도로 저하된 상태

업무와 관련한 심리적 증상...

번아웃, 보어아웃, 브라운아웃

번아웃, 2020년대를 살아가는 직장인들의 멈추지 않을 화재다. 번아웃은 단순 직무스트레스와는 다르다. 과도한 업무 부담이 지속되면서 완전히 방전, 탈진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번아웃은 세 가지 특성이 있다. 첫 번째,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린 듯한 정서적 소진 증상이다. 일하면서 느끼는 긴장도가 높고 퇴근할 때가 되면 파김치가 된 듯 힘을 다 써버린 느낌에 하루 이를 쉬어서는 회복되는 느낌이 들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업무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다. 예전만큼 업무에 관심이 없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하는지 의심이 드는, 쉽게 말하면 일 생각을 하면 뼈딴해지는 현상이다. 세 번째, 업무 효율감의 저하다. 스스로 일을 잘하고 있다는 효능감이 들지 않고 성취감 또한 낮은 것이다.

무언가 사라져 버린(Out) 느낌은 유사하지만, 번아웃과는 또 다른 업무 관련 증상이 있다. 업무 부담이 과중한 상태에서 경험하는 번아웃(Burnout)과는 대조적으로 단조롭고 지루한 업무를 반복하면서 경험하는 보어아웃(Boreout) 현상이다. 월급루팡이라는 우스갯소리처럼 업무가 적으면 당장은 편하겠지만, 이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무기력감을 느끼게 된다. 남은 에너지를 다른 생산적인 일에 쓰기에는 보어아웃에 빠진 사람은 이미 성취감이 낮고 전반적인 목적의식을 상실했기에 멍하고 무력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브라운아웃(Brownout) 증상도 업무와 관련된 증상 중 하나인데, 일에 대해서 더 이

상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자신이 업무를 하는 것이 쓸모없다고 느끼는 것이다. 백열전구가 수명을 다해 밝기가 떨어져 전구 빛 색깔이 갈색으로 보이는 것에서 유래한 말이니만큼 직장에서 연차가 쌓이면서 열정을 많이 써 버렸을 때 느끼기 쉬운 증상이다.

빠져나가고 있는 나의 에너지에게 회복할 틈을 주자

업무의 특성과 개인적 상황에 따라 취약한 증상이 달라지겠지만 필자가 십수 년간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진행하면서 번아웃, 보어아웃, 브라운아웃 중에서 번아웃의 증상을 압도적으로 자주 접했다.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다면 업무의 어떤 요인이 가장 불편하게 느껴지는지 점검해 보자. 사람들이 많이 손꼽는 업무 요인으로는 ▲과도한 업무량, ▲업무를 여유 있게 수행하기 어려운 시간적 압박, ▲개인 여유 시간이 없음, ▲예측할 수 있는 보상이 없다는 것, ▲직무 관련 소통 및 개선이 없음 등이다. 이것은 업무 만족도와도 직결되며, 번아웃은 '불만족감'과 깊이 관련 있다. 그렇기에 어떤 요인에서 가장 어려움을 경험하는지 확인하고 자신이 업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반대로 자신이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자. 그리고 바꾸거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실행해 보자.

성격과 동기 심리학 분야에서 저명한 심리학자 브라이언 리틀은 현대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회복 틈새'라고 설명했다. 회복 틈새란 사회적 요구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 그대로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휴가, 연차, 먹고 놀기와는 다르게 '나를 회복하는 것'이다. 지치고 방전된 기

분, 그 어느 일도 할 의욕이 생기지 않을 때는 기를 쓰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하며 나를 채워야 한다.

생계를 위해,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서, 혹은 이 회사를 다니고 있다는 자부심 등의 이유만으로는 향후 20년부터 50년까지 더 일을 해야 할 의미를 채우기 어렵다. 업무 스트레스에게 자리를 너무 많이 내주지 말고 나의 일부로서의 일을 다루는 것이 당신이 해야 할 일이다.



Profile 최은영

임상심리전문가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기업과 사람의 정신건강을 위해 마음으로 다가가는 기업정신건강 힐링멘토. 연세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동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을 공부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임상심리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그 직후에는 심리진단, 평가 영역에서 경력을 쌓았다. 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업무뿐 아니라 다양한 심리적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주로 기업 내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현장에서 발로 뛰어왔다. 다수 대기업, 공공기관, 외국계기업에서 상담, 위기개입, 교육을 진행했고, 근로자를 위한 정신건강 관련 글을 썼다. 현재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전임상담사로, 'CIM Care Program'에 참여해 삼성KPMG 구성원들의 스트레스 관리 및 마음치유를 위한 상담을 진행 중이다.

SAMJONG NEWS

‘제9회 청소년 경영·경제 교육’ 개최, 50여 명 중·고등학생 참가해



삼정KPMG는 지난 8월 3일 역삼동 삼정KPMG 교육센터에서 50여 명의 중·고등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제9회 청소년 경영·경제 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청소년 경영·경제 교육 프로그램’은 미래의 경제 주체가 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경영 및 경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자신의 꿈과 비전을 고민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정KPMG 회계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생활 속의 경영·경제’를 주제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일상 속 회계 강의를 전했다. ‘회계와 경영’ 강연을 통해서서는 회계사의 업무와 회계의 기초 개념을 알아보고, 직접 투자자가 되어보는 시뮬레이션 게임도 진행했다. 이어 서울대 경영대 유병준 교수가 ‘기업가 정신과 도전’을 주제로 기업가 정신의 가치와 의미를 설명하고, 비즈니스 모델

의 8가지 구성 요소를 강의했다. 기업가 정신의 성공을 위한 방법을 알아보고, 학생들이 자가 진단을 통해 각자의 특성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준혁 교수는 ‘ESG 경영’을 주제로 기업 운영에 있어 법률과 정부의 역할을 살펴보고, ESG 경영의 등장 배경과 가치를 설명했다. 학부모가 함께 참여한 강연에서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가 연사로 나서 ‘꿈과 목표의 심리학: 명사로 집중하고 동사로 펼치는 우리 인생’을 주제로 강의를 펼쳤다. 인간이 가진 포용성과 다양성의 힘에 대해 설명하고, 목표가 아닌 도구로서의 행복 추구를 강조했다.

한편, 청소년 경영·경제 교육은 지난 2013년부터 진행해왔으며, 교육에 참가한 누적 청소년은 약 450명에 달한다.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참가, 핀테크 기업 해외시장 진출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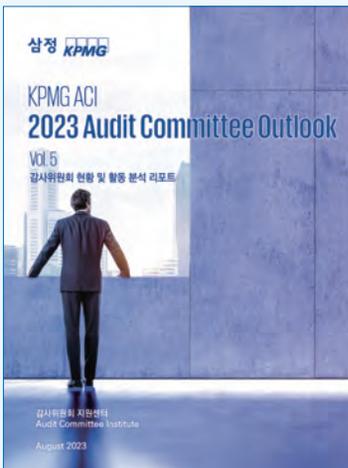
삼정KPMG가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개최하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행사에 참가했다. 올해로 5회를 맞이한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은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에서 ‘미래의 핀테크와 만나다’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삼정KPMG 김세호 상무가 국내외 핀테크 기업들 대상 해외시장 진출(Go-To-Market) 전략 세미나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김 파트너는 글로벌 핀테크 생태계 조망과 해외 진출에 필요한 국가별, 핀테크 영역별 비즈니스 환경 및 규제-인프라 현황을 제시했다. 김 파트너는 “핀테크 산업의 빠른 성장과 함께 서비스 영역별 리딩 기업들 투자와 기업공개(IPO)가 활발했으나, 산업 성숙도가 높아지며 성장성보다는 수익성을 중심으로 기업 밸류에이션이 조정되고 있다”며 “기업 수 증가, 사업모델 다변화 등 국내 핀테크 산업 성장을 바탕으로 이제는 비즈니스 모델의 차별화, 수익성 제고, 해외 진출을 통한 핀테크 산업 전반의 스케일 업(Scale Up)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Contact: Digital 김세호 상무 seihokim@kr.kpmg.com



‘2023 감사위원회 아웃룩(Audit Committee Outlook)’ 보고서 발간 코스피200 여성 감사위원 41명 급증



*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2023 감사위원회 아웃룩 (Audit Committee Outlook)' 보고서를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삼정KPMG가 코스피200 기업 감사위원회 현황 및 활동을 분석한 ‘2023 감사위원회 아웃룩 (Audit Committee Outlook)’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코스피200 기업의 여성 감사위원이 2021년 56명에서 2022년 97명으로 41명 증가했다. 코스피200 전체 감사위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0%에서 16.9%로 6.9% 포인트(p)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가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기인했다고 분석했다. 현 자본시장법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법인이 이사회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만 구성할 수 없다. 아울러 세계적으로 다양성·평등성·포용성을 중시하는 추세도 해당 변화에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감사위원회 안건 중 ESG 안건도 지속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삼정KPMG ACI 리더 김유경 전무는 “감사위원회에서 빈도가 높게 다룬 안건은 지난 5년간 외부감사인 감독,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내부감사 감독, 재무감독 순으로 변화가 없었는데 이번 분석에서 처음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안건이 포함됐다. 그 비중은 0.4%로 낮았지만 공시 의무가 강화되면서 지속적으로 ESG 안건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Contact: ACI 김유경 전무 youyoungkim@kr.kpmg.com

편안하고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새로운 채널, K-People 론칭



삼정KPMG가 지난 7월 31일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양방향 소통 채널인 K-People을 론칭했다.

모두가 함께 만드는 People First 2023을 위해 오픈한 K-People에서 구성원들은 법인이 추진 중인 Innovative Change, Smart Caring, Best Compensation 과제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편하게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각 과제의 담당자들은 구성원의 의견을 확인하여 과제의 개선에 활용하게 된다.

또한 구성원들은 People First Board를 통해 구성원 간의 자유로운 소통 및 정보공유, 그리고 법인에 대한 건의 사항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제안된 의견들은 법인에서 공식적으로 검토하여 게시글과 댓글을 활용하여 답변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구성원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로 다가오고 있다. 아침과 오후의

간식 다양화뿐만 아니라, 스타벅스, 테라로사 등 커피 전문 브랜드의 원두를 각 층라운지에 비치했으며, 또한 업무용으로 사용만료된 노트북 사내 판매를 오는 10월 중으로 준비하고 있다.

People First News에서는 구성원 건의에 의한 개선사항 등 People 관련 소식과 함께, 향후 진행이 완료된 People First 과제에 대해서도 소통할 예정이다.

그 밖에, People First Shorts에서는 법인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다양한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고, 해외 파견, GEP 등 성장지원 제도과 동호회 등 법인 생활과 관련된 영상도 확인할 수 있다.

삼정KPMG는 K-People에서 활발하게 소통하며, 구성원이 원하는 변화, 모두가 체감하는 변화의 'People First 2023'을 함께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FY2023 New S.Manager 승진자 교육 진행



지난 8월 31일 삼성KPMG S.Manager 승진자 교육이 인터콘티넨탈 코엑스에서 진행됐다. 이번 승진자 과정은 구루피플스 이창준 대표의 '중간 리더를 위한 공감과 소통의 리더십'과 신경철 부대표의 'Business Development 전략 및 KPMG Way' 강연으로 진행됐다. 또한 승진자 해외 연수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다. 이번 교육 과정을 통해 S.Manager 승진자들은 'People First' 문화를 이해하고 법인과 개인의 지속 성장에 대한 의지를 다질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NK비즈포럼 8기 수료식 가져



지난 8월 24일, 더 플라자 호텔에서 북한·통일 분야의 최고경영자 과정인 NK비즈포럼 8기 수료식을 가졌다. NK비즈포럼 8기는 지난 6월 1일 권영세 당시 통일부 장관의 특강을 시작으로 13주 동안 전·현직 장관급 인사 등 각 분야 권위자들을 강사로 초청해 한반도 문제와 인문학 강의를 진행했다. 이어 수료식 현장에서 진행된 한국학중앙연구원 유홍준 이사장의 강연을 끝으로, 기업 CEO와 임원과 법조인, 금융인 등 20여 명은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다.

[사랑나눔]

독거 어르신 및 결식아동 위한 제과·제빵 봉사 진행



삼성KPMG가 지난 8월 19일 독거 어르신과 결식아동 100여 명을 위한 제과·제빵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임직원 및 가족, 지인 45명이 참여한 이번 봉사활동에서 삼성인들은 법인의 봉사활동을 통해 뜻깊은 주말을 보낼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제과·제빵 봉사활동은 코로나19가 잦아들고 일상이 회복됨에 따라 대면으로 진행됐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대면 봉사활동을 매월 진행할 계획이다.

광복절 나눔, 한국해비타트 815런 후원



삼성KPMG가 지난 8월 15일 78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거를 지원하는 '한국해비타트 815런' 캠페인에 2년 연속 후원사로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는 총 9,500여 명의 개인 참가자와 삼성KPMG를 포함한 161개 후원사가 참여했으며, 기부금은 전액 한국 해비타트로 전달되어 독립유공자 후손 8가정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금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2023 삼정 KPMG 신입 컨설턴트 모집

Find Opportunity Everywhere with **KPMG**

삼정KPMG와 함께 전문가로 성장할 신입 컨설턴트를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 모집 분야

Strategy Consulting

Digital Consulting

Risk Consulting

Management Consulting

• 지원 방법

삼정KPMG Career Site 온라인 지원
(<http://career.kr.kpmg.com>)

• 문의

삼정KPMG 신입 컨설턴트 공채 채용담당자
- yuhyunroh@kr.kpmg.com
- boeunlee@kr.kpmg.com

• 지원 자격

- 2024년 2월 학사 졸업예정자 및 기졸업자
- 2024년 1월부터 Full-time 근무 가능한 자
- 전공 무관

• 채용 절차 및 일정

- 이력서 접수: 9월 4일(월) ~ 10월 4일(수)
- 1, 2차 면접전형: 11월 중
- 최종 합격자 발표: 11월 28일(화) (예정)
- 입사: 2024년 1월 2일(화)



'Channel' 구독 정보 변경/ 신규 구독/ 구독 취소 안내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신규 구독을 원하는 분, 또는 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변경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과 전화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E-mail: kr-fmchannel@kr.kpmg.com Tel: 02-2112-7567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